

2025 ‘학급 잡지 만들기’
-티글모아-

학적	학번 : 3112	이름 : 송정아	
일시	2025년 3월 13일 (목) ~2025년 4월 17일(목)	희망진로	인공지능

탐구 주제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
탐구 내용	<p>※ 탐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시오.</p> <p>- 탐구 문제, 탐구 방법, 탐구 결과, 탐구 결과 요약 및 논의할 문제 등등</p> <p>1. 탐구 문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은 어떤 점이 다른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음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인공지능 음악이 사람의 음악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p>2. 탐구 방법</p> <p>2-1. 음악 생성 실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인공지능 음악 생성 프로그램 이용해 음악 만들어보기● 비슷한 주제로 만든 사람의 음악과 비교 <p>2-2. 반응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 사람들에게 인공지능 음악과 사람 음악을 무작위로 들려주고 의견 들어보기 <p>2-3. 차이점 비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정 전달, 창의성, 반복성 등 비교● 표로 정리 <p>3. 탐구 결과</p> <p>인공지능 음악 생성 프로그램 ‘Suno’를 이용해 이별을 주제로 음악을 만든 후, 같은 주제로 사람이 만든 음악과 비교해 보았다.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목소리, 멜로디 측면에서 매우 자연스러웠고, 발음 또한 어색한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가사의 경우 감정 표현이 다소 부족하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 인공지능 음악인 것이 확연히 느껴졌다.</p> <p>총 10명에게 위에서 언급한 인공지능이 만든 노래, 사람이 만든 노래를 들려준 후 의견을 수집했다. 모든 감상자는 인공지능의 노래와 사람의 노래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신기하다, 새롭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감상자가 대다수였다. 멜로디의 경우 기승전결 없이 이어지고 어딘가 익숙한 창의적이지 못한 멜로디라는 의견이 많았다. 가사도 마찬가지로 창의적이지 못하며, 인공지능의 음악인 것을 바로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어색하다는 의견도 존재했다.</p>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의 차이점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인공지능 음악	사람 음악
멜로디	자연스럽지만 다소 반복적이고 흔함	다채롭고 독창적
가사	창의성 부족, 어색함	자연스럽고 개성 있음
감정 전달	감정 표현 부족	감정 표현 풍부, 감동적

4. 탐구 결과 요약 및 논의할 문제

이번 탐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은 매우 정교하고 자연스럽지만, 창의적인 가사와 멜로디, 감정 전달 등의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 또한 파악할 수 있었다. 인공지능은 기존의 데이터를 조합해 음악을 만들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음악을 만든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아직은 인공지능의 음악이 사람의 음악을 대체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기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까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창작물로 인정해도 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탐구를
바탕으로
한 기사
작성

(단순한 사실 위주 보다는 탐구과정 및 자신의 생각(배우고 느낀 점)이 많이 드러나게 쓰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음악 창작 분야에서도 AI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관심이 생겨 인공지능 음악 생성 프로그램 'Suno'를 활용하여 '이별'을 주제로 한 음악을 제작한 후, 같은 주제로 사람이 만든 음악과 비교 분석하는 탐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청취해 본 결과, 목소리와 멜로디는 상당히 자연스러웠다. 발음 또한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거의 없어,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사의 경우 감정 표현이 부족하고 문장이 매끄럽지 않아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총 10명의 감상자에게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과 사람이 만든 음악을 들려주고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모든 감상자가 두 음악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으며, 인공지능 음악에 대해 '신기하다', '새롭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다수는 인공지능 음악의 창의성과 감정 전달 측면에서 부족함을 느꼈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멜로디에 대한 평가는 '기승전결이 부족하고 익숙한 느낌의 반복적인 구성'이라는 지적이 많았으며, 가사에 대해서도 '감정 표현이 어색하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인공지능이 생성한 음악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자연스럽게 구현되었지만, 창의적인 가사와 감정 전달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수의 사람이 이러한 한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악을 조합해 내지만,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바탕으로 음악을 창작한다는 점에서 두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인공지능 음악은 사람의 음악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특히 감정 표현과 창의성 부분에서는 여전히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감정 표현까지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을 독립적인 창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탐구를 통해 인공지능 음악의 잠재력과 한계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으며,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의 감정을 대신하는 인공지능의 역할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느꼈다.